

4분기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 지역별 상황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관서장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 '23.2분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 수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5.(목) 09:30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 소관 9개 지방관서*와 함께 본부의 집중관리 계획과 지역별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정부, 안산, 평택, 포항, 익산, 군산, 목포, 대전, 청주

중대재해 집중관리 지역에서는 지역단위 자체 기획감독·점검, 현장점검의 날 추가실시 등 감독·점검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사고다발 지역 대상 찾아가는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주요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등 지역 내 안전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힘써주길 바라며, 본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역별 집중 관리가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내 경각심 제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집중관리 9개 지방관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윤서 (044-202-8902) 이철호 (044-202-8904) 정수빈 (044-202-8908)

참고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안)

① 감독·점검 강화

- ① **(지역별 기획감독·점검 추진)** 지역별 집중되는 사고유형·업종·구역 등 대상 자체 기획감독·점검 추진
 - * ▲노·사 자율점검 요청 후 불시감독, ▲건설현장 지자체 합동점검 등
- ② **(현장점검의 날 추가 진행)** 고위험사업장, 중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매월 2·4주 수요일)을 매월 1회 추가 진행
 - * ▲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패트롤 점검 강화,
 - ▲ 별목·지붕공사 현장 대상 주 1회 패트롤 점검 및 간이 안전교육 실시 등

② 교육 강화

- **(긴급교육 추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례, 특별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법적 의무교육시간 3시간 인정)'을 연말까지 최소 3회 이상 추가 추진
 - * 중·소규모 건설현장, 지자체 발주공사, 신규 착공현장(지자체 인허가 부서와 협업하여 현장 목록 파악) 등 대상 실시

③ 지역단위 간담회·홍보 추진

- ① **(지역단위 업종별 리더회의)** 건설업·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 리더 회의를 관서별 최소 1회 이상 추진
 - *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 대상 재해예방 간담회, 고위험사업장 사내협력업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
- ② **(지역 언론사 홍보 실시)** 기획감독·점검 등 주요 활동 내용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홍보, 지역 언론사에 적극 보도토록 협업 강화
- ③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집중관리 지역 내 사고다발 업종, 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등 실시
 - *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캠페인 추진, ▲자치단체와 중대재해 예방 공동선언 추진 등